

[예배모범] 설날추모예배
믿음 속에서 위로합시다

찬양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 444장)	다같이 주안에 있는 나에게 (찬 455장)
기도		인도자
성경봉독	살전 4:13-18	인도자
말씀	믿음 속에서 위로합시다.	인도자
찬송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찬 344장).	다같이
중보기도		다같이
주기도문		다같이

죽음이라는 것은 산 자들과의 이별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죽은 자들을 ‘자는 자들’이라 말하면서, 그들을 기억하는 자들의 신앙의 태도에 대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1. ‘자는 자들’을 기억할 때 슬픔보다는 소망을 생각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 경험하는 유익은 이제 다시는 세상에서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마지막 부활의 때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생명의 부활’로 일어선다는 것입니다.(요 5:29) 남아 있는 자들이 이것을 기억할 때, 자신의 남은 생애가 예수님과 함께 하게 될 것과 자신이 귀한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을 믿으며 소망을 키워가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2. ‘자는 자들’을 생각할 때 예수부활신앙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살아 남아있는 자들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매일 새로운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깨닫고 감사해야 하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 ‘자는 자들’과 ‘믿는 우리들’ 모두에게 동일하게 역사할 것을 확신하며 전해야 합니다.

3. ‘자는 자들’에 대해 말할 때 예수 강림 시 다시 만날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별로 끝나는 것이 죽음이라면, 믿음과 상관없이 우리들은 서로 다시 만날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주 강림하실 때에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 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인들과 늘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함께 기억하며 서로 위로하는 가정이 되는 것,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살전 4:18)

* 출처 - 온 누 리 신 문 (<http://news.onnuri.or.kr>)